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의 특징

김 경 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역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야 지난 기간에 제기되었거나 오늘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이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셔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현시기 외국문학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들을 역사주의원칙에서 분석하여 혁명실천에 옳게 구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고전주의문학은 17-18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존재하였다. 유럽에서 고전주의가 먼저 생겨나고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고전주의창작방법은 그것의 현실적, 세계관적 및 문학적토대와 그것이 반영하고있는 시대적요구와 관련하여 세워진 일련의 일반적인 미학적원칙들의 총체로 되어있다. 고전주의창작방법의 일반적인 미학적원칙들은 17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에서 고전주의문학이 사조로 형성될 때 세워진것이다.

고전주의의 미학적원칙은 첫째로, 개인의 리익과 감정을 절대군주국가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내용을 담는것이고 둘째로,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을 원천으로 삼고 그것을 모방하는것이며 셋째로, 추상론리적일반화를 실현하는것이고 넷째로, 이성주의에 기초한 엄격한 규범(3일치법, 문학형태의 규범화, 일정하게 규범화된 언어의 사용)을 내놓고 그것을 지키는것이다.

물론 이 미학적원칙들은 고전주의가 존재하는 기간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학적원칙들이 적용된 정형은 시기마다, 나라마다 달랐다. 그런것으로 하여 매개 나라의 고전주의문학은 일련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자체의 고유한 특징도 가지고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이 문학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먼저 발생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였다는것이다.

영국에서는 고전주의가 17세기 중엽에 출현하여 18세기 초엽까지 존재하였다. 영국 고전주의문학은 17세기 70년대에 드라이든, 포우프의 창작을 통하여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후에는 인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로씨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고전주의가 18세기에야 나타났다.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고전주의는 대체로 일시적인 경향을 이루다가 사라졌다. 이 나라들에서의 고전주의는 당시에 힘있게 벌어진 계몽주의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내용에서 계몽주의사상을 많이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에서의 고전주의는 사실상 계몽적고전주의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전주의가 17세기초에 발생하여 18세기 30년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존재하였다. 프랑스고전주의는 17세기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수한 작가와 작품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절대군주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은 고대문학에 대한 모방에 기초하여 절대주의의 정치적리념을 옹호하는 문학이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고전주의작품들이 절대군주제도의 현실을 반영한것은 아니다.

실례로 영국고전주의문학은 부르조아혁명에 의해 무너졌던 왕권이 일시 복고된 현실을 반영하면서 군주제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라이든(1631-1700)은 희곡 《그레네이더정복》(1670), 《모든것을 사랑을 위하여》(1677)에서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의 줄거리를 리용하여 왕권과 귀족들의 부패한 생활을 극구 찬양하였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은 이 시기 세력이 강한 수많은 봉건적인 공국들로 분열되어있었던것으로 하여 민족통일국가수립은 먼 장래의 일로 되어있었다. 이 나라들에서의 고전주의의 발생은 자체의 사회력사적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조건지어진것이 아니라 주로 이웃나라들의 영향에 의한것이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민족통일의 가능성을 마련해보려는 국내신흥부르조아지의 활동의 산물이였다고 볼수 있다.

이탈리아의 알피에리(1749-1803), 골도니(1707-1793), 도이칠란드의 실레르(1759-1805) 등은 작품들에서 주로 권력야망에 사로잡힌 공국의 왕들과 봉건령주들의 전제주의, 그들내부의 암투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이에 비해볼 때 절대군주제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가 세워지고 존재한 17세기의 프랑스현실은 고전주의문학이 발생발전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은 절대군주제의 리념을 반영하고있으며 절대군주제도를 옹호하는데 복무하였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에 대한 시대적지향이 높아졌다.

프랑스고전주의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나라의 정치경제적분산성을 청산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한 절대군주제를 이상화하면서 그것을 《강력한 국가제도》로, 군주를 민족통일을 이룩한 대단한 인물로 내세우고 극구 찬양하였다. 그들은 또한 절대군주제강화에 이바지하는 행동을 《리성적인것》으로 여기면서 귀족들이 봉건적문벌관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군주에게 충실하며 절대왕권을 수호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스고전주의작품들은 군주와 절대군주제에 대한 지지, 왕권을 수호한 신하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찬양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갈등도 《국가적인것》과 《개인적인것》의 충돌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국가적인것》의 승리를 확인하는것으로 해결하였으며 작품의 결말을 주로 왕의 개입으로 처리하였다.

봉건령주들의 분권주의책동을 비판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에 대한 지향과 찬양의 사상을 담은것은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의 진보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당시 고전주의자들은 국가통일의 간판밑에 봉건적충군사상을 설교하고 절대군주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고전주의문학은 절대군주제도의 부패성이 로골화되던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그 내용이 달라졌다. 라쎄(1639-1699), 물리에르(1622-1673), 라 풍뎐(1621-1695)을 비롯한 고전주의작가들은 부패성이 더욱 표면화되는 군주제현실에 반감을 품고 그를 비판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들의 작품들에서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폭로는 항상 정신도덕적인 탐구와

결부되어있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사회악과 부정의에 대한 항거정신, 인도주의와 도덕적순결성에 대한 찬양, 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규탄의 정신 등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그들은 긍정과 부정의 계선을 뚜렷이 긋고 부정의 패배와 긍정의 승리를 확인하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은 현실을 철저한 립장에서 비판하지 못하였다.

라센은 군주들의 전횡과 패덕을 비판하면서도 착취계급의 우두머리로서의 그들의 반인민적본성은 폭로하지 못하였다. 몰리에르도 귀족, 승려, 부르쥬아지들을 비판하였지만 그들의 착취자적성격은 까밝히지 못하였다. 라 폰텐의 우화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 도덕교훈적인 설교가 더 우세하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불철저하게 주어진것은 창작가들의 세계관적, 계급적제한성과 관련되어있다.

고전주의작가들은 대다수가 군주제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들은 절대군주제도의 반인민적본성과 부패성을 옳바로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또 리해할수도 없었다. 그들은 절대군주제도현실의 부패한 현상들이 많은 경우 개별적인 귀족, 부르쥬아지들의 도덕적결함이나 리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연적인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그들은 군주를 비롯한 착취자들과 착취사회현실을 깊이있게 비판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군주를 옹호하거나 《리성적인》 군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것과 같은 심각한 제한성을 나타냈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 미학적원칙과 창작규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것이다.

프랑스로고전주의의 미학적원칙은 자연을 찬양하여 그리는것이다.

고전주의자들은 자연을 어느때에나 변함이 없는 리성적인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진리와 동일시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과장이 없는 진실을 의미하였으며 이로부터 그들은 고전주의작품에서 자연을 중요한 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 전반기까지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은 자연과 같은 《진리》를 절대군주제에서 찾았다. 민족의 통일이 시대적요구로 나섰던 당시에 그것을 실현한 절대군주제는 고전주의자들에게 《진리》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을 그리는것을 절대군주제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는것과 같은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꼬르네이(1606-1684)이다. 그는 비극들에서 개인적감정을 억누르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몸바치는 왕들과 귀족들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절대군주제를 강화하는데 헌신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시기에 다른 나라의 고전주의문학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프랑스로고전주의작가들은 자연을 그려야 한다는 미학적원칙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몰리에르가 내세운 《자연을 따라 그리라》는 미학적원칙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라 폰텐, 라브류에르, 라센 등도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작품들에서는 절대군주제현실이 어느정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자연을 중요한 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미학적원칙은 18세기에 등장한 다른 나라들의 고전주의문학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을 찬양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갈것을 주장하던 계몽주의의 영향과 관련되는것으로서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군주와 군주제현실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된것이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이 내세운 중요한 창작규범의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극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센은 《극창작의 기본규범은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고 감동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규범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몰리에르는 《창작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대중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재판관》은 《대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이 념두에 둔 《대중》이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귀족들과 부르주아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문학에서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지향과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고전주의문학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명백하게 제시된 것이 없었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3일치법을 보다 엄격히 지킨 것이다.

3일치법은 작품의 사건은 반드시 24시간 안에 끝나야 한다는 것, 사건무대는 반드시 한 장소로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주인공에게만 복종하여야 한다는 미학적 도식이다.

다른 나라의 고전주의작가들도 창작에서 3일치법을 지켰으나 프랑스로고전주의작가들처럼 이 규범을 엄격히 지키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프랑스왕궁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작가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코르네이가 비극 《르 씨드》(1637)를 내놓았을 때 왕궁은 그 작품이 로마문학이 아니라 에스빠냐전설에서 소재를 취하였고 3일치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구실로 박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코르네이는 한동안 창작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끝내는 왕궁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의 창작규범의 다른 하나는 창작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은 우선 작품에서 이성적인 것 즉 긍정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부정적인 것의 균형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작품들에서는 권력의 탐욕, 부화방탕, 허영, 린색, 탐욕 등 부정적 특질을 체현하고 이성애 어긋나게 행동하다가 마감에 파멸되고 마는 부정인물들이 나오는 동시에 그들과 균형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긍정인물들 즉 이성적으로 행동하다가 마감에 부정인물들을 타승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이러한 규범은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교양하려는 시도의 표현으로서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들에서 균형적으로 대치된 인물들과 현상들은 이성애 기초하여 제시된 것으로 하여 초계급성과 같은 심한 제한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은 또한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규범도 지켰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전반기에 나온 작품들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작품들에서는 현실적인 인물, 사건들이 나오는 동시에 작가의 미학적 리상에 따라 꾸며진 비현실적인 인물, 사건들도 제기되는데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비현실적인 것이란 극단적으로 과장된 성격적 특질,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설정된 인간관계, 현실에서는 거의나 찾아보기 힘든 사건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작가들이 독

자들을 감동시키고 창작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하자면 현실적인것만 보여주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비현실적인것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주한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실례로 꼬르네이의 비극 《르 씨드》나 《오라스》(1640)에서는 반침략애국투쟁이나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투쟁과 관련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성격과 행동, 그들사이의 관계와 그에 의하여 전개되는 사건들은 현실적인것과 비현실적인것의 균형적인 결합으로 되어있다. 그것들가운데서 어떤것들은 실지로 있을수 있는 사실들이라면 어떤것들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것들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남편으로 삼는다든가 자기의 너동생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과 그것을 통하여 표현된 인물들의 성격, 호상관계 같은것이 바로 그러한것들이다.

작품에서 균형보장의 규범을 지킨것은 다른 나라의 개별적인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으나 그것이 창작규범으로 제기되고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창작된것이다.

다른 나라 고전주의문학에서는 시와 비극이 주되는 형태로 되어있으며 그밖의 문학형태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에서는 시(말페르브와 라캉의 시들), 비극(꼬르네이와 라쎈의 비극들)과 함께 희극(몰리에르의 희극들), 우화(라 풍텐의 《우화집》), 소설(라파이에프의 장편소설 《클레브공작부인》, 귀유라그의 소설 《쁘르뚜갈인의 편지》), 예술적평론(부알로의 《시학》, 라브류에르의 《성격들 혹은 이 세기의 풍속》)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나왔으며 매개 형태마다에서는 이름있는 작가들과 작품들이 배출되었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의 이러한 특징들은 꼬르네이, 라쎈, 몰리에르, 라 풍텐과 같은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일정하게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것이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은 작품창작에서 언어사용의 산만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그들은 인문주의문학에서 사용된 언어를 산만한것으로 보았다.) 엄격히 규범화된 언어만을 사용할것을 요구하였고 창작실천에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규범적인 문학어는 궁중생활의 요구에 맞게 《정리》되고 《다듬어진》 귀족들의 언어로서 인민구두어와는 인연이 없는것이였다.

프랑스로고전주의자들이 문학어를 규범화한것은 문학어를 세련시키는데 이바지한 점도 있기는 하나 문학을 귀족들의 취미에 복종시키고 절대군주제를 강화하는데 복무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심한 제한성을 가지는것이였다.

이러한 특징들로 하여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의 고전주의문학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민족적특성이 뚜렷한 문학사조로 되고있다.

프랑스로고전주의문학은 력사적으로 볼 때 봉건절대군주제를 옹호할 목적밑에 창조된 문학으로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이 문학에는 프랑스인민들의 민족생활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고 문학발전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경험과 성과도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프랑스문학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